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기반 확충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봉사시간대별 클럽 운영
배지·포인트카드 지급...자원봉사 활성화 기대

자원봉사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올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활동 인정·보상을 위한 'V-star 클럽'과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모임인 'V-리더스 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2001년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체계를 다지기 위해 'V-star 클럽'과 'V-리더스 클럽' 운영에 돌입했다.

'V-star 클럽'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200·500·1,000·2,000·3,000·5,000·10,000)을 총 7개로 나눈 시간대별 클럽을 구성해 클럽별 보상을 실시한다.

200~500시간 클럽 신규 가입자인 경우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센터(사

도내 VMS 200시간 이상 누적 활동 자원봉사자

(2020. 5 현재)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2,969명	480명	140명	27명	14명	5명

(vms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회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봉사시간대별 배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1,000~10,000시간 클럽 신규 가입자인 경우 연말에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V-star 클럽' 배지 전달식에서 배지와 버스카드·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V-리더스 클럽'은 '사

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를 대상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조모임을 통해 등재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회복지자원봉사 리더로써 한 단계 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VMS 등록봉사자가 2001년 150명에서 2019년 151,617명으로 1,0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인정보상제도 도입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탄력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726-5786)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13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아동학대 추방의 날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

지면소개

- 종합2면
제주도의회 의정 소식
- 종합3면
사회복지협 카페 '당신을 위한 선풍기' 개소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법률홈닥터
- 기획 7면
「'코로나 19'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좌담회
- 종합 8면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나눔 참여 기관·기업 광고>

Since 2006

제주농협

행복나눔 운동

"도내 농협 임직원 2,500여명
매월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코로나19 위기극복 제주농협의 ON기(氣)



온라인개학 노트북 지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홀몸어르신 어버이날 선물



지역아동센터 우유제품 지원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워킹그룹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지난달 12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사진>

이번 2차 회의는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차 회의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현황에 대해 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과 문부자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자활사업 정책 및 현황 관련해 김경환 (사)일

하는 사람들 대표가, 제주도 및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 김관현 제주도 일자리과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일자리 정책 행정 조직의 혼재로 인한 통일적 추진 어려움, 취약계층 일자리 추진 지원 조직 필요, 복지와 고용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필요, 취약계층 당사자 조직간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협업, 제주지역에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진 등 의견을 제출했다.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제도개선과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제주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강화를 위해 워킹그룹 회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조례 개정 추진

오영희 도의원, 지원센터 설치근거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한부모가

족 대상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가구유형이 소규모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민감성 높은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달체

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희 의원은 “적지 않은 한부모가족이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 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족해체와 가족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떤 대상보다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제주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운영

제주도는 장애여성들의 경제적 부담비용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출산비용과 교육,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지원 사업은 ▲생애주기별 욕구과약을 위한 상담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계획수립 및 지역연계 등을 위한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과 멘토링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운영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710-9802)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735-2643)에서 하고 있다.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입

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702-0295)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735-2672)에서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접근성 문제나 서비스 정보부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학령전기(만 36개월~만 6세 미만)아동에게 1:1맞춤형 언어발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평가와 교육, 부모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 인력 5명이 읍·면 외부기관(보육시설,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 1인당 주 2

회, 1회당 50분 교육, 10분 부모 상담으로 총 5개월간 40회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행절차는 초기면담(초기면담지 작성)을 시작으로 초기평가(필수검사 진행), 활동계획서 작성, 발달교육(일지, 상담일지 작성), 종료평가(초기평가와 동일)와 만족도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712-114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5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등뼈 275kg ▲유진상사=오푸기 식품 4,627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빵 240봉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상추 80kg ▲대한축산유통=돈등뼈 60kg ▲텔문도=빵 10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138봉 ▲동아오츠카(주) 제주지점=음료 4,34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9,392개 ▲팡스부대찌개=두부 6kg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495봉 ▲롯데제과=롯데제과식품 6,280개 ▲모양=빵 206봉 ▲미인빵=빵 139봉 ▲바바오럼=빵 27봉 ▲비엔누아즈=빵 154봉 ▲소민떡방=떡 214개 ▲알과통상=식료품 266개 ▲이든이네=건어물 15kg ▲약속다방=빵 141개 ▲제주보리촌=보리빵 200개 ▲참새방앗간=떡 915개 ▲코시롱둘비=두부 90개 ▲픽스커피공단지점=빵 138봉 ▲해맑은 떡방= 267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4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1,110,000	23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700,000	7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75,000	0
푸 드 마 켓 후 원	3,035,000	17,160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승화
- 편집인 : 김성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사회복지협 카페 ‘당신을 위한 쉼표’ 개소

회관 로비 내 조성...커피머신 등 편의시설 갖춰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최근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8일 회관 로비에서 ‘cafe 당신을 위한 쉼표’(이하 카페쉼표)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카페 쉼표는 커피머신 2대와 냉동고, 냉장고,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 각종 차 등이 갖춰져 있으며,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월~금요일 오전 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은 규모의



모임,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나눔홀’도 마련됐다.

나눔홀은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물류센터 2층에 조성됐으며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자료집과 소설택,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발간책자, 제주사회복지신문 등이 구비되어 있다.

나눔홀 대관 관련 문의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702-3784)로 하면 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이 시기에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조성됐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2020년 제41회 김만덕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김만덕상은 조선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한 제주의 대표적 인물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눔 실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여성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에 각 1인씩 2인이다.

봉사부문은 경제적·물질적 도움 보다는 순수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이며 경제인 부문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배움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여성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시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역대 김만덕상(만덕봉사상) 수상자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20세 이상의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수상 대상자 선정은 10월 중 결정되며, 시상은 2020년 김만덕 주간 행사인 만덕제 봉행 시(10월 18일 예정) 이뤄질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부문별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김만덕상은 2006년부터 도외까지 확대하여 2019년까지 총 49명에게 수여하였으며, 올해에도 훌륭한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사회복지인 합동 정년 퇴임식 갖는다

제주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인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오는 6월 2020년도 사회복지계 합동 정년 퇴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합동 정년 퇴

임식은 오는 6월 30일자 정년퇴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회복지현장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회복지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오는 6월중 퇴임식을 개최한다. 퇴임식은 가족, 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과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오랜 시간동안 제주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퇴임식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상·하반기 합동 퇴임식을 개최해 사회복지인들을 축하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사랑의 빵·쿠키 300개 나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김영배)는 지난달 26일, 한라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이웃사랑 식품(빵, 쿠키 300개)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전달된 식품은 사회통합협의회와 이민자네트워크 회원 일동이 제빵 재능나눔을 통해 직접 만든 것으



로, 식품나눔을 통한 도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된 물품은 도내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김만덕기념관 식품 기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가 지난달 21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농축산물 꾸러미 600개(2000만원 상당)를 기



탁했다. <사진 왼쪽> 농축산물 꾸러미는 코로나19 사태로 판로가 막힌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꾸러미는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이와함께 같은날 김만덕

기념관(관장 김상훈)도 제주도푸드뱅크를 방문해 이웃사랑 식품(김만덕 사랑의 쌀, 500kg)을 전달했다.

이 날 기부 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인 도내 이웃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상훈 관장은 “여러모로 힘겨운 시기이나, 김만덕 나눔정신 계승과 봉사 실천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멘토링 활성화지원사업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7일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 제1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간담회는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앞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법 등을 공유해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몽생이그룹홈, 제주소나이그룹홈, 제일지역아동센터, 1318 해피존터블어숲지역아동센터,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저소득층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선다

아라LH아파트 부지 내... 총 사업비 74억원

국토부, 최종선정

제주시 아라LH아파트단지내 유휴지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의 현장실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1동 아라LH아파트 단지 내 유휴지(818㎡)를 활용해 고령자 주택 24호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내부는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인지건강디자인 등 무장애(Barrer-Free)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된다.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 경로식당, 다목적실이 설치될 계획이다.

더불어 건강교육, 우울증

및 치매 예방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비는 국비지원 47억원, 도 18억원, LH 9억원을 부담해 총 74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해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은 2021년에 시작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응원 보따리 지원



제주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센터장 양명희)는 지난달 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따라 가정에서 홀로 학습하는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대비 찾아가는 특별 응원 보따리를 지원했다. <사진> 이번 응원 보따리는 지난 4월 14일 1차, 4월 25일 2차 응원에 이어 3차로 진행되었고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요약집, 마스크, 손세정제, 비타민, 부식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지원

을 통해 종사자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유대가 공고해지고 온라인 생방송 수업을 비롯한 검정고시 시험대비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학습지원, 교육지원, 체험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머전시 푸드팩 지원 시범사업 추진

도 푸드뱅크, 20개 주·부식품으로 구성

긴급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서 운영하는 제주도푸드뱅크는 6월부터 ‘이머전시 푸드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머전시(Emergency·응급) 푸드팩 지원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빈곤, 위기가정)에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긴급상황에서 즉시, 간편하게 취식할 수 있는 식품 세트로서, 주·부식류 포함 총 8종, 20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푸드뱅크는 6월부터 푸드팩 30세트를 상시 보유해 지원사례 발생 시 신속히 지원, 도내 결식문제에 즉시 대처할 예정이다.

올해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이웃들’과 연계해 대상가구를 발굴·지원하며, 점진적으로 협력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승화 회장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푸드뱅크



지원체계를 다각화해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력하고자 한다며, 빈곤·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과 개인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엘린호텔 ‘탁월한 수준’ 평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엘린(대표 한봉금)에서 운영하는 엘린호텔이 한국관광품질인증소 서비스 품질 평가 4개 분야에서 90점(전국 평균점수 82점)을 획득해 ‘탁월한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인증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3가지 만족도 조사(한국관광서비스 품질지수, 온라인사이트 평점지수, KQ-소비자체험단 점수)와 현장 인증평가를 실

시해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보통, 우수, 탁월로 측정했다.

특히 호텔엘린은 타 인증업소 224곳 중 대부분의 업소에서 ‘우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엘린호텔의 ‘탁월한 수준’ 평가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봉금 원장은 “앞으로도 엘린은 고객의 편안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고 전했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그림책 ‘당근이지’ 펴내

제작기간 1년...상상력·동심 엮어내

아이들의 상상 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책으로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최근 센터 아동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 ‘당근이지’를 발간했다.

‘당근이지’는 평대마을 농부 부석희 씨의 당근밭 당근 이야기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엮을 수 있다.

그림책 출간은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아이들의 바람으로 시작됐다. 아이들은 책을 제작하기 위해 마을이야기 듣기부터, 책읽기, 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캐릭터를 그렸으며, 발간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림책 발간에는 박재형(전 평대교 교장) 작가의 감수가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으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달고 출판물 등록도 마쳤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사업주 부담경감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 300인 미만 사업체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필수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다.

소/식/마/당

(무순)

깨끗한 주거환경 제공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2일 좋은이웃들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한 가운데 연동에 위치한 대상자 가구를 찾아 가구 지원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지난해 안덕면과 용담1동 대상자에게 전자제품을 지원했으며, 올해 아라동 대상자의 집에 청소와 난방비 등을 지원했다.

자체 방역활동 진행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지난달 8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자체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지난 3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 재해재난적립금 지정기탁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통해 지원받은 방역플루건과 방역전용 소독액을 활용해 이뤄졌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이용 장애인과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렸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도내 장애인 중 약46%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임을 감안해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권익증진 활동을 통해 행복한 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예프로그램 운영



아가곶드래(원장 이민숙)는 지난 4월부터 중증장애인 소득보전 및 직업유지를 위한 공예프로그램 '꽃길만 걸잡(JOB)'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프리저브드를 활용한 공예활동(DIY)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서 정서적인 안정 도모와 직접 만든 창의적인 작품들을 생산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제품군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웃사랑식품 기부



(주)디지털옵틱(대표이사 곽윤식)은 자회사(청현)를 통해 지난달 1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를 방문해 1,200만원 상당 이웃사랑 식품(삼계탕, 2,004개)을 전달했다.

곽 대표이사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기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 힘을 더하고자 나눔으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청소년시설 방역물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청소년시설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대상 기관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 등 제주도내 청소년관련 시설 60여 곳으로, 손소독제 440개와 살균스프레이 1000개, 3중 필터마스크 5000장을 시설 규모에 따라 배부했다.

의사표현 능력 향상 기대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30회기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원예 식재, 토리어리,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과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참여형 놀이아트활동으로 진행되는 데 정서적 안정 및 긍정적 의사표현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여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오는 10월까지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주시장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에서 주관하는 집단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암교육활동센터 관계자는 "발달,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심리,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격려 물티슈 후원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외사과장 차경택)를 통해 구좌읍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코로나19' 격려 차원으로 물티슈 1박스를 후원 받았다.

이번 후원받은 물품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 배분할 계획이다. 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와 삶의 질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펼쳐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는 최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동 지역내 1.5km를 2시간여 동안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최은미 원장은 "보호와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서귀포시산림조합 '산울림 봉사단'(단장 오형욱)은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봉사활동은 생활관 내부편백루바 시공과 외부정원 가지치기 활동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정혜재활원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물품배분사업 실시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 4월 26~27일 양일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도내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생활지원 건강식품 물품배분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물품배분사업은 신장장애인관리상담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신장장애인 120여명에게 긴급구호세트와 밑반찬 및 마스크를 전달했다.

시론

배가 고파 맛있는 거 사달라는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대구시 소재 한 호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인권활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있었던 7일의 작심 폭로에 이어진 2차 회견이었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전신인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과 대표자를 비판하며 회견 내내 울분과 걱정을 토로하였다.

이에 언론들의 논조가 궁극했다. 회견 뒷날 주요 아침신문들의 사설을 살펴보았다.

우선 진보언론의 경우, 한겨레신문은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윤미향 당선자가 답해야>라고 논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운동 문제·개선점 확인한 이용수 할머니 2차 회견>이라고 보도했다.

구순을 넘긴 할머니의 절규

보수언론의 경우, 조선일보는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어” 할머니의 눈물>이라고 평했다. 중앙일보는 <“잘못 밝히고, 운동 바꿔라”...이용수 할머니의 말 울다>라고 보도했다.

진보든 보수든 국내 주요 일간지들의 논조는 위안부 인권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구순을 넘긴 할머니가 제시한대로 앞으로 운동의 방향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의 논리가 득세하며 이념의 양극단으로 치닫는 한국사회에 비록 원칙론적이지만 모처럼 공통 인식의 논조를 읽을 수 있었다. 물론 제기되고 있는 회계부정과 기부금 의혹 등은 검찰 수사로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회견 내용 중 안타까운 사연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할머니는 “시간이 늦어서 배가 고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러자 되돌아 온 것은 “돈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이다. 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 여권 인사의 말은 실망 그 자체였다. 그는 라디오 대담프로에서 “시민단체는 그렇게 기부금을 (밥값으로) 지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

라도 할머니들에게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를 두고 비인간적이라 비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솔직히 모금 행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녔으면, 사비로라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인지상정이지가 더욱 그렇다.

모금 행사에 모시고 다녔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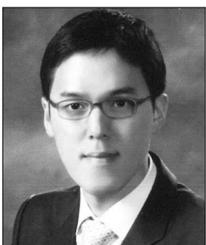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함의(含意)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연은 그동안 할머니들이 받았던 부당하거나 섭섭한 일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토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배가 고파 맛있는 거 사달라”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이 너무 씁쓸하다.



김범훈 (사)Geo-Jeju 연구소장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71

정서적 아동학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4세반에서 입소한지 3주가 된 아이가 담당 보육교사로부터 훈육을 받았다. 창문 바로 앞에 있는 교구장과 그 아래의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이 이를

따라하는 일도 발생하자 안전 사고 방지 및 단체생활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다.

교사는 아이를 높이 약 78cm의 교구장에 안에 올려 앉힌 다음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며 약 40분 동안 그 곳에 있게 하였다. 그 사이에 수회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태도를 관찰하며 관심 범위 내에 두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아니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며 벌금에 처하도록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보호자의 작은 실수에도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까지 살피는 어른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칼럼

“이것도 집이냐?”

한국 아동 10명 중 1명이 ‘주거 빈곤’이란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다. 첫머리에 사진 한 컷을 실었다. 이불, 옷가지, 잡다한 생활용품들을 꾸역꾸역 쌓아 밀어 넣고... 잡동사니들이 뒤엉켜 눈 뜨고 못 보겠다. 집이 좁아 정리는 꿈도 못 꿀 형편인데 음습 짙은 벽 곳곳엔 허영게 곰팡이가 슬어있다. 서울 속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다.

“이것도 집이냐?” 취재기자의 말이다. 한 컷 사진만으로도 실감이 난다.

아릿적 회상이다. 초가집이 넉넉지 않아도 공간이 있었다. 신문지로 도배한 방 두셋, 마루에 툇마루도 깔려 있었다. 보리 까끄라기나 솔방울 말뚱으로 구들을 지퍼 그만한 터수로 한겨울을 났다. 여름엔 마당에 멍석을 펴 방이 됐다. 길게 누워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무리 보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하고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잠에 떨어지곤 했다. 팔다리에 딱딱딱 종기가 낳지만 피마자 잎을 몇 번 붙이면 나왔다. 그렇게 자라선지 웬만큼 환경에 적응하는 내성(耐性)을 키웠다.

도시 집중이 빚은 불행한 주거환경인가. 아이들이 살기에 참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아동 128만 명 가운데 10%가 이런 주거 환경이라니 심각하다.

주거 빈곤의 여러 현상들이 나와 있었다. 곳곳에 금이 가 있는 화장실, 찬장이 위태롭게 기울어 금세 넘어질 것 같은 부엌, 곰팡이가 피어난 축축한 벽... 아이들이 유난히 재채기를 많이 하고, 겨울이 되면 아랫도리를 많이 긁는다.

몸이 불편한 부모와 반 지하에 사는 한 12살 아이는 여섯 식구가 살기엔 너무 좁아 옷가지 정리는 엄두도 못 낸단다. 하물며 집안에서 공부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토정이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런 주거 환경이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정서 발달에도 자연히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더 나아가서 학업성취도의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말한다.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인 가족 20만 원씩 지급되는 주거수당을 아동이 있을 경우, 상당 폭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교육지원 보육수당 같은 지원은 되고 있으나, 아동들이 사는 주거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게 없으니 안타깝다.

자치단체의 노인 중심 주거 개선 사업을 주거 빈곤 아동에게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의식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절대 빈자들이 적지 않은 게 풍요 속 우리 현실이다. 한창 자라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주거 빈곤처럼 무서운 장애는 없다. 늦기 전에 배려해야만 한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코로나19'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좌담회

사회복지현장 방역협의회 구성...대처능력 키워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훈)와 사회복지시설위원회(위원장 이미정)가 공동주관한 이번 좌담회 참석자의 주요 발언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사회복지 정책위·시설위 공동주관...지난달 26일 협의회 바람소리들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복지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 박미란 위원 센터는 휴원으로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긴급돌봄도 해야 한다고 했다. 휴원상태인데 많은 아동들이 긴급돌봄으로 나와있어 현장에선 안전과 긴급돌봄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센터는 공결아동 가정에 도시락 배달과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긴급돌봄 아동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이 종일 이루어졌다. 모센터는 실시간 수업을 위해 1시간 빨리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종일 돌봄운영체제, 소그룹학습운영 그리고 방역규칙을 지키며 밀린 행정까지 적은 인력으로 해내면서 종사자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다.

▲ 표성주 위원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은 등급이 없어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센터 휴관조치로 어떤 보호자들은 일터에 어르신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한다.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이 필요하다.

▲ 김민범 위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지원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시설 입주자가 생활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외출 하지 못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다. 고립에 가까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시설 입주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원내에서 이벤트 행사나 산책길 걷기 등 일상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 김효주 위원 인력과견사업이 중심인데 사업중단으로 과견인력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상담서비스도 중단되어서 상담원과 피상담자 모두 불안한 상태이다.

▲ 김경화 위원 재가서비스에 대



▲ '코로나 19'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이용자·근무자 등 신체·정신적 무기력 심화도 획일적 지침 적용 무리, 보조금 일괄 삭감 우려

한 중단 지침이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축소는 없다. 요양보호사들이 불안한 마음에 서비스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거주시설 중심으로 방역물품이 지원되고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배제되었다가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자 지원이 있었다. 재가서비스는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

▲ 고민혁 위원 직원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계획된 사업들을 하지 못해 안타까워 하는데 보조금 일괄 삭감까지 이뤄져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인근 공원에서 내기 옷놀이와 화투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속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생각이다.

▲ 부은숙 위원 예정되어 있던 사업과 행사를 하지 못해 걱정이 크다. 무엇보다 일괄적인 예산 삭감은 무리라고 본다. 특히나 장애인단체인 경우 단체별 상황과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과 행사를 못하면 일을 안한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이다. 위기상황에 더욱 긴장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또는 앞으로 더 심각한 감염병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사회복지계가 취해야 할 조치는?

▲ 김진우 위원 어르신이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보호자가 모시고 가는데 이 경우에는 보호자를 만날 수 있지만 면회를 목적으로 하면 보호자가 어르신을 만날 수 없다. 보호자와의 접촉까지 차단하려면 병원 이송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육지 다녀온 어르신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계기관에 격리공간제공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시설 자체적으로 팬션을 빌어 2주간 격리한 사례도 있다. 확진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거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계가 방역협의기구를 만들어 방역물품 확보와 배분,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확보 방안 등을 담은 지침개발, 코로나19로 멈춰서 버린 복지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방역수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 해야 한다.

▲ 표성주 위원 콩나물 키우기 등 정서적 방역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행 중인데 반응이 좋다. 집에서

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고민혁 위원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수업도 어려운 상황이라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시설 자체적인 해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윤민 위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이후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매뉴얼도 자리잡았다. 사회복지계에서도 다양한 근무방식에 대해 고민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 신혜교 위원 의료계는 그동안 감염병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지금 수준의 대처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계도 이번 경험이 기회가 되어서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서비스 제공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온라인 이용역량을 키우고 그에 맞는 환경조성도 미리 해두어야 할 것이다.

▲ 김효주 위원 다양한 곳에서 방역지침이 전달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충돌하는 지점도 있었다. 지침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맥락이 유지되고 실천성이 있어야 하는데 팽질식, 보이기식도 있다. 안타까운 건 지침에 근무자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서비스 제공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산재처리 한다거나 불이익을 가한다는 내용뿐이다.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임상배 위원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본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시설 유형과 서비스 제공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인 내용의 지침을 적용하라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 안철민 위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고민이 크다. 비대면 서비스 개발시 노인, 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 일괄삭감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에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지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삭감조치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⑩

화북윈드오케스트라(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클래식 음악으로 주민과 소통 활발



▲ '화북윈드오케스트라'가 화북복지장터에서 공연하고 있다.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바로 '화북윈드오케스트라(단장 김영환)'의 얘기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클래식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화북초등학교 관악부를 중심으로 창단된 '화북윈드오케스트라'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을 행사나 장터, 산지천 분수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돼 70여 명의 단원들이 분기별로 거리음악회나 공연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비장애 청소년의 음악재능육성을 위한 재능 나눔 관악단 '탐라 색소폰 앙상블' 운영에 협력하고 있다.

'탐라 색소폰 앙상블' 운영에는 화북윈드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장애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1:1로 개별 악기 연주 교육봉사활동으로 참여 하고 있다. 단원들은 재능 나눔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음악재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환 단장은 "화북윈드오케스트라의 모토는 '도전과 열정, 책임과 하모니'"라며 "청소년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원들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열정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북윈드오케스트라의 시작은 학교 관악부 활성화였지만, 머지않을 미래에는 제주의 관악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네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제주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7개 발전마을 방역 봉사활동 실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는 지난달 11일, 공사 풍력발전단지 설치 사업장과 해상풍력 추진 인근 마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황금연휴시기에 맞춰 20만 명 가까이 입도한 관광객들로 인한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각 마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이 실시되었다.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고려해 주민 밀집공간과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졌다.

공사는 방역에 필요한 살균소독제와 방역물품을 구입해 사회적 기



업과 함께 총 7개 마을, 41개소의 공공시설을 방역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섰다.

공사 관계자는 "방역실시를 통해 마을주민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윤영)는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서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엔젤스 봉사단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봉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손을 도왔다.

문윤영 본부장은 "마을 수확을 앞두고 작황 호조가 예상됨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지역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한 마늘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일손 돕기를 실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손길이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



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직면한 도내 화훼 농가를 위한 '사무실 꽃단장 캠페인',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돕기 1억원 상당의 긴급구호 생필품 키트 지원, '도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계획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개 ⑩ 길직업재활센터

다양한 제품 생산...고객 만족도 높아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2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길직업재활센터'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길직업재활센터

길직업재활센터(원장 양은심)는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사회참여는 물론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 세탁사업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과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침구류 등을 세탁하고 있다. 깨끗하게 살균 세탁한 제품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수거와 납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종이컵·물티슈 사업

종이컵은 무형광 천연고급펄프를 사용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관공서, 금



▲ 왼쪽부터 노기다카페, 제빵, 물티슈

용기관, 학교, 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고 기관의 로고나 연락처, 홍보문구 등을 새긴 종이컵의 계약 생산이 가능하다.

물티슈 사업은 천연펄프를 원료로 위생적으로 만들고, 개별포장해 생산과 납품을 하고 있다.

▲ 제빵사업

제주산 향토 재료와 직접 배양한 천연발효종을 넣어 만든 천연발효 건강빵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보리빵, 치아바타, 단팥빵, 잡곡빵, 쿠키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카페사업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사업 지원을 통해 제주아트센터(제주시 오남로 231) 1층에 '노기다카페'를 개점해 수제 발효빵과 디저트, 음료를 판매중이며 기관 및 단체 등의 케이터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문의: (796-5777)